

특별기획

농촌빈집 반값임대주택 시행

김제보건소 무료 국가암 검진

김제시 보건소(소장 박래만)는 국가암 검진대상자이면서 검진을 받지 않은 미수검자에 대한 유선 및 문자신식으로 집중 검진 홍보에 나섰다.

김제시 보건소에 따르면 무료 국가암 검진 대상자는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8만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8만 6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암 종별 검진주기는 ▶위암 (만40세 이상 남녀 2년마다) ▶대장암 (만50세 이상 남녀, 1년마다)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중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6개월마다) ▶유방암 (만40세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 (만20세이상 여성, 2년마다)이다.

이중 자궁경부암대상자는 지난해 1만8000여 명에서 올해 1만9000여 명으로 확대됐으며 간암검진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졌다.

또한 관내 검진기관과 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출장검진기관은 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063-540-1394)으로 문의하여 된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 치료시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니 조기검진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사랑이다” 거듭 강조하며 “미수검자는 오는 11월 말까지는 검진을 꼭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

새만금 현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이 지난 4일 새만금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신시33센터를 찾은 이준원 차관은 박종대 새만금사업단장으로부터 새만금 주요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새만금 종합통제실 등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이후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현장인 농생명용지 조사단지로 자리를 옮겨 사료작물 재배현황을 보고 받은 이 차관은 새만금 노출지를 적극 활용하여 농어업인 등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검토·추진하고 농어업인들의 경쟁력 제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업 지연 등 장기 사업에 따른 정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농생명용지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경찰서, 구절초 축제

입장권 활용 치안홍보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정읍시청 농업정책과의 협조로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절초 축제는 10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열리며, 지난 주말 약 일일 5~6만여 명이 방문했다.

정읍경찰은 구절초 축제 입장권 뒷면에 ‘4대 악 근절, 정읍경찰이 함께합니다.’는 문구를 삽입해 구절초 축제에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해 홍보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서 서림 지구대, 수확철

농·축산물 절도예방 총력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 서림지구대(지구대장 강종삼)가 농·축산물 절도 및 농가 빈집 탈에 대비 관내 보관 장소 방범간판 및 주변 순찰 강화에 나서 절도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서림 지구대는 인삼, 버섯, 주요 농산물 경작지 및 농가 정미소 등 농산물 보관장소, 축사 등 범죄 취약지 중심으로 실시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대상 주거안정 나서

김제시가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 사업’을 시행한다. 빈값 임대주택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이 쓰레기 무단투기 등 미관저해 뿐만 아니라, 청소년 탈선장소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빈집을 피살리는 동시에 농촌지역의 주거불안도 함께 해소한다는 것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 사업에 참여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할 빈집 소유자를 모집한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초과비용 건물주 개인부담)이며 빈집 리모델링 후에는 의무적으로 5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 임대를 해야 한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 사업 임대희망자는 건물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김제시청 건축

과(063-540-348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반값 임대주택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비롯한 저소득층과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에 해당하며 농촌의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 시행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은 예산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6차 산업 관련 사업 등 특색사업 16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행복사업 21건 등 총 37건, 10억 원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최종 확정했다.

“부안지역 예산 주민이 직접 편성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정

부안군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김진배)에서 예산이 편성된다

이를 위해 군은 읍면별 지역회의를 통해 수립된 제안사업 155건에 대해 심의와 협의를 거쳐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려고 실시한 것으로 참여 예산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6차 산업 관련 사업 등 특색사업 16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행복사업 21건 등 총 37건, 10억 원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최종 확정했다.

주요 선정사업은 현꽃향기 가득한 사계절꽃터 조성, ‘블루베리 6차 산업 체험장 주변 정비사업’, ‘지리마을 6차 산업 생산간판 보강사업’, ‘계화간척지 전망대 재생 오복센터 조성’, ‘내소사면역 느티나무숲 조성사업’, ‘White Mountain(백산) 스토리텔링(꽃잔디 가로수길 조성)’, ‘개암사 상사화꽃길 조성사업’, ‘아간조영 시설을 이용한 관광평소화 사업’ 등이

김종규 부안군수는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

의·확정해 정책기획부터 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공감·동행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려고 지난날 9월 35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확정된 주민참여예산은 부안 군의회 의결을 거쳐 2017년 본예산에 최종 편성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12월 말까지 소득·재산·인적조사 통한 부정수급방지

김제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적자료 변동에 대한 하반기 확인조사를 4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금번 조사는 최근 경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도 68종의 공적자료와 134개 국내의 금융기관의 자료를 취합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부담경감, 한

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등 총 3,552명이다.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소득·재산·인적 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급여변동자와 예상탈락자는 사전통보하여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

도록 구제하고,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서비스와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대상자가 역을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와 함께 소득·재산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확인조사 과정에서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전 이의신청기간 부여 등으로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보장종지대상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차상위제도, 민간지원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 인구회복 위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표어 공모전’ 시상식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에향운동본부(이사장 이한욱)가 주관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표어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4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모전은 정읍시 인구회복 운동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애郷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8월 10

일부터 9월 13일까지 35일 간에 걸쳐 진행된 공모전에는 표어 134점과 포스터 108점 등 총 242점이 접수됐고 21점의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표어 부문에서는 김하연(덕천초 1), 이한결(매영중 1)학생 포스터 부문에서는 유지나(덕천초 5), 양연수(정일여중 1), 이승희(정중 2)학

생의 작품이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됐다. 또 표어 부문 입상작에는 늘어나는 이웃사랑 행복정읍 함께해요, 땅을수록 밝습니다 우리들의 꿈과 미래, 한 번 오니 정이 들고 두 번 오니 내 삶이네, ‘이러브 정읍’이 많은 정읍 등의 작품이 선정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11회 부안군 양성평등 한마음대회가 5일 부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부안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진)가 주관하여 여성단체 회원을 비롯한 관내 군민 및 내빈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안군 양성평등 한마음대회

부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서 700여명 참석

제11회 부안군 양성평등 한마음대회가 5일 부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부안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진)가 주관하여 여성단체 회원을 비롯한 관내 군민 및 내빈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안군 양성평등 한마음대회는 ‘모두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상호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는 개회선언, 명랑운동회, 기념식, 유공자 표창, 장기자랑, 어울림 한마당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김종규 부안군수는 “그 동안의 여성단체 활동내용과 보람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소

통·공감코자 더불어 같이 사는 부안 가치로운 부안을 만들기 위한 미중물 역할을 당부드린다”며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행복한 같이의 가치가 우리 축복의 땅 부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박진 부안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은 “지난해와 다르게 15개 여성단체와 남녀 모두가 참여해 좋은 추억을 만들어 너무 기쁘다”며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넉넉한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여성의 기세를 보여주면서 여성단체 간 상호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 적극 지원

정읍시가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소상공인 간 공동의 이익창출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영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해 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협동조합은 5인 이상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구매와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공동의 사업추진을 실행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조합원의 8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협동조합기본법 또

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협동조합 당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협동조합 설립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1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되는 청년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하는 등 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준비 및 진행 등 12회의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최근 몇 년간 시설하우스에서 병해충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병해충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설하우스 병해충 관리 철저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최근 몇 년간 시설하우스에서 병해충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병해충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지는 가을에는 환기부형과 온실가루이, 점박이응애 등의 발생이 높아지므로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하며, 유효성분이 다른 적용약제를 번갈아 살포해야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하다.

특히 가을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목화비독명나방 등의 나방방

제를 철저히 하여 수확기를 앞둔 수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 토마토, 딸기 등 양액재배농가에서 작은뿌리파리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황색끈끈이를 설치하여 예찰을 강화하고 방제 초기에 방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시설하우스 내부 환기가 잘되지 않아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딸기나 토마토 등에서 역병, 잎곰팡이병, 잿빛곰팡이병 등이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하우스 내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

최근에는 애호박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